

질염

그레이스병원 원장 황 경 진

질염은 많은 여성이 한 번쯤은 고생한 적이 있을 만큼 아주 흔한 염증이다. 대개 미혼 여성보다는 성생활을 하는 기혼 여성에서 주로 나타나며 증상은 가려움, 화끈거림, 성관계 시 통증, 소변을 보는 중 쓰라림 등까지 동반한다.

질염은 많은 여성이 한 번쯤은 고생한 적이 있을 만큼 아주 흔한 염증이다. 대개 미혼 여성보다는 성생활을 하는 기혼 여성에서 주로 나타나며 증상은 우선 냉이 많아지고 냄새가 나거나 심하게 가려움증까지 동반한다. 원래 정상적인 질 분비물은 흰색이거나 연한 노란빛으로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다만 배란기 전후로 해서 맑은 물처럼 잠시 양이 증가하는 정도이지만 질염이 있을 때는 질 입구의 가려움, 화끈거림, 성관계 시 통증, 소변을 보는 중 쓰라림 등까지 동반한다.

>>>질염은 모두 성병인가?

많은 여성이 이런 걱정을 하고 질염 증상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남편을 의심한다.

그러나 실제로 질염을 일으키는 균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고 성병도 있지만 성병 균이 아닌 일반적인 단순한 균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질염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면 된다. 그러나

정말 배우자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성병 균에 의한 질염이라면 치료를 철저히 해야 한다. 즉 임질 균 때문이라면 스펙티노 마이신 계통의 주사를 1주일 단위로 2회 정도 남편과 함께 치료해야 하며 혈액검사 시 매독 감염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페니실린 요법으로 1주일 간격으로 약 3회 정도 치료하고 그 후에도 계속 혈액검사를 통해 균의 정량 측정을 하여 치료 과정을 관찰해야 한다.

>>>질염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가?

우선은 공기 순환이 잘 되어야 하므로 너무 짝 조인 속옷을 입으면 좋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예방법이다. 그러나 성병의 증상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해야지 그 상태에서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면 그대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평소에 질 세척제를 사용하는 것이 질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까?

아니다. 여성들의 질 내부에는 자체적으로 정화 작용을 하는 이로운 세균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질 속까지 특히 세정제를 사용하여 씻어 내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이로운 세균들까지 제거되어 염증 균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즉 잦은 세척으로 인해 정상 균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해 주는 질 내 산성 환경이 알칼리성으로 변화하면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이 번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척을 할 때는 걸 부위만 샤워 정도로 청결하게 하는 것이 좋고 질 내부까지 깊숙이 씻어내는 것은 질 건강상 좋지 않다. 또한, 세정제나 약품은 질염 증상이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질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세균성 질증

질 내부가 벌겍게 충혈되면서 냉이 누렇게 나오는 경우인데 대개 소량이다. 드레싱을 깨끗이 하고 약제를 사용하면 대부분 며칠이면 좋아진다. 특히 임신 초반기에 이 균에 감염되면 냄새가 심한 노란 냉이 나오는데 조기 진통이나 조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칸디다성 질염

가장 흔한 형태의 질염으로 하얗게 치즈 같은 냉이 쌓인다. 흰색의 걸쭉한 냉과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가 주원인으로 임신부, 당뇨병 환자는 면역 기능이 약해질 때 잘 발생한다. 치료 후에도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철저히 치료를 해야 한다.

>>트리코모나스 질염

기생충의 일종인 트리코모나스에 의해 발생하며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성병으로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후유증으로 불임, 골반염, 조산 등이 있고, 물 같은 냉이 흐르면 트리코모나스 질염을 의심해야 한다. 트리코모나스는 편모가 있어 운동성이 좋기 때문에 요도를 타고 방광까지 침입하기도 하며 침입한 균으로 인해 방광염을 유발하고 자궁 내막을 타고 올라가 골반염을 일으켜 아랫배를 아프게 하기도 한다. ㉞